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, 세계 원자력보험시장 선도

- 중국의 원자력시설 관련 보험을 담당하는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(中国核保险共同体)는 건립 10주년을 맞이해 중국 원자력보험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함.
-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는 중국재보험공사, 중국인민보험공사 등 총 19개 보험회사가 참여해 만든 중국 유일의 원자력보험 관련 보험기관으로 원자력보험 인수능력을 제고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.
 - 보고서에서는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가 현재까지 국내 5개 원자력발전소 소재 10기의 핵원자로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인했으며, 한국을 포함한 세계 22개 국가들의 원자력보험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 310개 핵원자로 시설에 대한 원자력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밝힘.
- 이 보고서는 원자력보험 인수능력 세계 5위, 해외 원자력보험 수주액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음.
- 설립 초기인 1999년 0.46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자력보험 인수액이 현재는 8배가 증가한 4.16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(세계 5위), 특히 해외 원자력보험 수주액은 0.15억 달러에서 10년 새 2.7억 달러로 무려 17배가 늘어나 세계 3위를 기록함.
 - 또한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가 인수한 핵원자로(이른바 보험표적물량)는 전 세계 원자로의 약 70%에 해당되는 양으로 보험인수 능력에 있어서 세계 5위 수준임.
 - 이러한 큰 폭의 성장세는 작년 중국정부가 원자력보험 인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중국재보험공사에 4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자금을 투입하는 등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함.
 - 한편,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가 지난 10년 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총 1.2억 위안(보험금 지급률 약 20%)으로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거인재경, 9/2 | 21세기경제보도 · 금융시보, 9/3)